

평화광장, 목포 대표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목포시가 목포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자 관광명소로 부상한 목포 평화광장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구조개선 사업이 펼친다. 평화광장 일원 전경(왼쪽)과 러브게이트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yousou@

시, 50억원 투입 2020년까지 대대적 구조개선 사업 추진 무장애 거리·해상 공연장 조성...음악분수 관람 기능 강화

‘춤추는 바다분수’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한 목포 평화광장이 목포시를 대표하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상동 평화광장 일원 8만4000㎡를 목포를 대표하는 친수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의 평화광장은 보행자와 차량의 혼용으로 인해 교통서비스가 낮고 해변과 광장이 지닌 빼어난 경관의 가치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최근 평화광장 구조개선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비지원 사업 공모와 함께 국비 지원을 건의한 뒤 5월 7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3년 간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올 예산으로 5억 원을 반영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평화광장 구조 개선사업은 먼저 인도와 녹지 공간을 재조정해 교통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거리로 조성된다.
또 바다분수 중심에 자리한 해변 데크를 대폭 개선해 시민들의 친수 공간을 확대하고 음악분수 관람에 필요한 기능도 강화된다.
친수 공간 확대에는 가족형 썬바·해상 공연장·해상 포켓 공연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과 상권 강화를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는 물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도 병행된다.
특히 평화광장 앞 바다에 설치된 바다분수는 매년 50만~6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지난해에 설치된 러브게이트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구조개선 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목포시는 전망했다.
목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평화광장이 조성된 지 20년이나 돼 구조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평화광장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변 상인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화광장에 일정 부분 놀이시설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도 자전거·전동차·푸드 트럭·음식과 사행성 부스 등 미

관을 해치는 집산인들이 많아 이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평화광장에서는 연간 100여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으나 당초 행사 목적과 달리 장삿속으로 변질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목적 외에 사용할 때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과태료 액수 상향 등 ‘평화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강화시켜 평화광장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원 관광학 박사는 “이번 사업은 수변경관 자원을 활용한 목포시 이미지 구축과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며 “사업 착수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납품된 구조개선 용역에 대한 검증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쏟아지는 청년정책... “실효성 높은 대책 나와야”

지방선거 앞두고 공약 잇따라
“목포 만의 정책 필요” 목소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다 피부에 닿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해 말 목포 청년 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7명이 ‘취업과 구직’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목포 청년 10명 중 9명은 목포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청년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89%가 “목포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절

실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취업할만한 일자리 부족’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목포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앞 다퉈 청년 대책과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 경제시장을 표방한 박홍률 민주평화당 예비후보는 ‘연봉 3000만원, 일자리 2000개 창출’을 청년 일자리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발표된 일자리 공약에는 일정 기간 근무하는 단기성 공공 일자리가 다수 포함돼 현실성이 떨어졌으나 이번 공약에는 구체적인 연봉이 명시된 양질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후보는 공약 실천방안으로 ‘시장 직

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와 ‘청년 공약 이행 검증단 모집·운영’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공약 실행을 위해 “민·관·학·산 등을 망라한 20명 규모의 일자리 위원회를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해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년 공약 이행 검증단’ 500명을 공개 모집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들 검증단은 박 후보의 공약사항을 예비 후보 단계에서부터 제시, 검증하고 시장 당선 시 공약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는 게 박 후보의 설명이다.
‘청년이 미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종식 민주당 예비후보도 ‘청년창업 중추 지원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목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기금을 출연, 목포지역 창업청년들에게 신용보증금을 해주고 있고 금융기관과 청년창업자금 지원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목포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그는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청년 창업 생존율이 낮은 만큼 시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전문가를 초빙 창업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 주는 ‘청년 창업 프라자 조성사업’추진도 공약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방안도 내놔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지역 정치권이 청년문제의 대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제공>

김대중 기념관, 우수 공립박물관 인증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관장 김진태·이하 기념관)이 개관 5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제’에서 우수인증기관에 선정됐다.
20일 기념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90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경영전략과 경영관리, 사업관리, 고객관리 등 4개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조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인증공립박물관으로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는 운영·관리 평가를 통한 공립박물관의 운영 내

실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김진태 관장은 “우수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관은 해마다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와 목포 평화비전 스쿨, 김대중 평화문화제,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특별 전시회, 국제 평화 학술회의, 특별 체험 프로그램(연 4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서해어업관리단 신청사 개척식...어업지도선 취항식도

서해어업관리단 (단장 김옥식)은 지난 16일 목포시 북항 배후부지에 신청사 개척식(사진)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5호 취항식 행사를 함께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시장 우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및 어업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서해어업관리단 신청사는 2016년 착공 1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지면적 3만1831㎡, 건축면적 5073㎡에 지상 3층 건물로 완공돼 지난달 4월1일 이전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체 건조된 최첨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5호(총톤수 1659t, 길이 79.6m, 너비 13.0m, 깊이 4.5m, 최대속력 18노트)와 무궁화 4호(총톤수 970t, 길이 71.2m, 너비 11.0



m, 깊이 4.2m, 최대속력 17.5노트)의 취항식도 함께 실시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새롭게 신설된 청사에서 더 쾌적한 분위기로 민원민 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 최첨단 국가어업지도선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배치해 소중한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조업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광주 송정역·광주역·목포역

역사내 광고주모집

광주 송정역

광주 송정역

목포역

광고 PREMIUM

- ✓ 수서발 고속열차 SRT 개통 후 이용객 급증
- ✓ 송정시장
- ✓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

이용객 증가추이 (단위:명)

역명	2015년	2017년
광주송정역	3,998,000	6,908,000
목포역	1,773,000	2,271,000

공식대행사 나코스(유) 010-8822-5425 062-376-5420